

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,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가져

✎ 김철희 기자 | ⓒ 승인 2025.03.18 17:09

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

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모습. 사진=구미김천지사 제공

[구미(경북)=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구미김천지사(지사장 나창식)는 18일 회의실에서 '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'를 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.

또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도 가졌다.

지사는 농지은행의 '맞춤형농지지원사업'과 '농지임대수탁사업'을 통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또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 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나창식 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"고 밝혔다.



김철희 기자 chk1500@naver.com